



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북과학기술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과학기술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과학기술 정책 확보 꺾 도정혁신!

송하진 도지사, 연구개발 혁신 행보 본격화
산업구조 개편 · 혁신성장산업 육성계획 점검

전북도가 연구개발 혁신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할 예정인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주관한 첫 회의를 열고 도정 혁신 행보를 본격화했다.

도는 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전북도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산업구조 개편 등 혁신성장산업 육성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2019년 상반기에 발굴한 40건의 과제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며 성장동력 창출 방안을 모색했다.

과학기술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연구기관장과 도내 주요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상시적인 정책소통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북도 연구개발 혁신을 통한 도정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해 거버넌스 강화, 인프라 확대, 프로세스 내실화, 기술사업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도정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을 현행 정무부지사에서 도지사로 격상하고, 연구기관장 간담회 확대 등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혁신성장산업과 농·식품 분야에 집중된 연구개발 역량을 확산하기 위해 전 실·국 단위의 R&D 투자 계획(5년)을 수립하고 위원회 구성 범위를 문화, 환경, 보건, 안전 등 도정 전반으로 확대·개편한다.

또한, 과학기술 정책기획·관리·평가 등을 전담하는 가정 '전북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혁신을 통해 도정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한다.

최근,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등 산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 집중 투자(7.8조원) 및 연구개발 예산면제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전북도는 도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과제 발굴 지원을 확대하고, 제조업 기술사업화 촉진 등 연구개발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과 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확대 및 기업수요 맞춤형 연구개발 과제 발굴 지원을 강화하며,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장중심 연구개발 발굴, 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 및 기술사업화 후속사업 지원 확대 등 기술사업화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 산업 전반의 면밀한 진단과 구조분석을 통해 기존 산업 고도화와 성장동력산업 육성방안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도출하는 등 전북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도내 산·학·연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해 20여 차례 회의의 및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에너지신산업 등 6대 혁신성장산업, 18개 중점 추진분야의 산업육성 계획을 수립했다.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까지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를 운영하며, 혁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국가예산 반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통과 첨단 융합 가속성장으로 전북경제 대도약 비전 달성과 스마트 특성과 및 성장·혁신·전환 등의 추진전략으로 전북의 혁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농생명식품, 바이오융합, 탄소융복합, 미래형자동차, 지능형 기계조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소프트웨어 등 과학기술위원회 산하 7대 연구회에서 2019년 상반기 연구개발 기반 40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세부기획을 추진 중에 있다.

위원회 산하 연구회는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신산업 발굴 등 국가사업 과제기획 및 산학연 정책소통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5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신규 과제 발굴은 정부정책, 산업구조 개편 등 도정 반영과 산학연 수요조사 등 총 74개의 과제제안서 중 중점 육성 검토와 사전심의 등을 거쳐 총 사업비 7634억원 규모의 40개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사업 내용을 기획 중에 있다. 연구개발 과제 발굴은 세부 내용의 기획이 완성되는 9월중으로 전문가 자문 및 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성도를 높이고, 정부부처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가사업 반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연구개발(R&D)은 전북 성장잠재력의 원천"이라며 "앞으로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서 도지사가 직접 과학기술 분야를 챙기고,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도정 전반으로 확산해 도내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농특산물 홍보대사 역할 '특독'

도, 지방자치단체개발원서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
엄선된 150여개 제수용품 · 선물세트 · 지역특산물 등

전북도는 농협중앙회전북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오는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개발원(원장 박재민)'에서 추석맞이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이번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는 지방자치단체개발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운영되며 매년 두 차례(설, 추석) 인제개발원 로비에서 지역 농산물을 전시판매해 연간 1억원 이상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개발원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이전기관 중 선도적으로 지역농산물을 식재료로 구내식당에 제공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입교하는 공무원 8000여명(2019년 계획)의 교육생에게 전북도 우수 농산물의 홍보에 크게 기여하는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 추석 전 교육생들은 전국 각 지역에서 온 사무관 승진자 및 장기

교육생들로 자연스레 전국에 전북 농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특히, 장터가 열리는 오늘은 지난 달 28일부터 입교한 사무관 승진자 과정 400명 등 약 700여명 교육생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세트 등 도내에서 생산된 마을상품 · 도지사인증 · 6차산업인증품 중에서 엄선하여 32여 농가 150여 품목을 준비한다.

조호일 도 농식품산업과장은 "로컬푸드 중심의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해 부담 없는 가격대와 실속 있는 선물세트로 교육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응원합니다"

도,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유치
도시에 창업 테스트베드 구축
28억원 국비 · 운영 예산 지원

전북도가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신규 설치지역으로 최종 선정돼 도시에 창업 테스트베드 구축이 가능해졌다.

2일 전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발표하는 '소상공인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신규 설치지역으로 전북을 비롯해 인천, 경남 등 3개 시도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며 정부로부터 구축을 위한 국비 28억 원과 함께 계속사업으로 매년 운영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그동안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가 소재하는 6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도)에서만 운영돼

민의 경우 원거리 광주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도내의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수요 지역에서 준비된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는 분석이다.

체험점포는 중심상권에 사전 경영체험 중심의 공간인 '팝이룸(팝이 커지는 곳)'을 구축해 교육생들이 실제로 사업 아이템에 대한 판매 활동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을 검증해 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실제로 예비 소상공인들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은 후 창업의지가 강해지고 창업 준비도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소상공인교육성과평가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의지가 강해졌다'가 68.7%, '창업준비 향상'이 교육 전(69.2점)보다 13.9점 오른 83.1점을 각각 기록했다.

/김진성 기자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신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이론교육과 점포경영체험 총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패키지 지원되는 국가직접사업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유치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기재정정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 사업유치에 혼신의 힘을 쏟았으며, 그 결과 이번 정부추진에서 전북 유치의 쾌거를 이뤘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경기부진 상황에 무분별한 창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충분한 준비없는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고 준비된 창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 생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동부권 식품산업의 발전방안을 찾다

도, 식품클러스터 대토론회 개최

전북도와 전북 생물산업진흥원(이하 생진원)은 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동부권식품클러스터, 성과와 추진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도는 동부권지역 발전을 위해 동부권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추진하며, 2011~2020년까지 2단계에 걸쳐 1333억을 투자하고 있다.

동부권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생산·가공·체험관광까지를 식

품 생산공급의 전 가치사슬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고용창출, 관광객 증가 등을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토론회는 1~2단계 성과와 개선사항을 되짚어 보고 2021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추진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중장기 동부권 식품산업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는 "동부권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지

리적인 강점과 연구기관의 집적화, 전북도의 강한 추진 의지(동부권 특별회계)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만큼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준비를 끝마쳤다"고 강조하며, "시군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고 산학연관이 하나로 뭉쳐 토론과 소통을 통해 지역식품산업 육성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재홍 농축수산식품국장은 "1~2단계 동부권식품클러스터를 통해 낙후된 동부권 지역의 활력과 성장동력의 기초를 다진 만큼 3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참여기관과 긴밀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